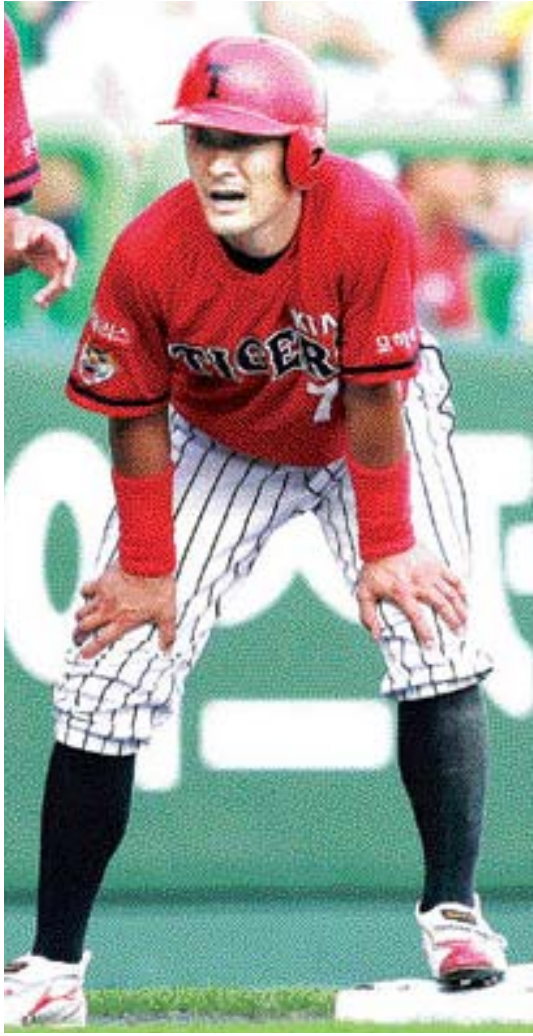


세계정당인이다! 원정박인! 골프프로로 상선과 초대한다!

임핑 나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남권IC 구간 광복 동행드 관동
- (명동출발점)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npdynasty.co.kr 0801-320-7700



‘바람의 아들’ 또 은퇴 논란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은퇴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0.174의 타율로 데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은 올 시즌 전해보다 60% 삭감된 2억 원에 연봉 계약 도장을 찍었다. 프로 야구 사상 역대 최대 삭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이종범은 계약 당시 김조호 단장과 3할 타율을 약속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구단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언급을 했었다. 하지만 이종범은 0.284의 타율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구단 측에서는 내년 시즌 활용 폭이 줄어들 전망이고 3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종범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지만 당사자인 이종범의 뜻을 확고하다. 이종범은 “선수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말로 선수 생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밝혔다.

이종범을 시즌 3할타 안돼
구단선 명예로운 은퇴 기대
추 “한번도 생각한 적 없다”

자율훈련 중인 이종범은 “무릎상 등을 오르내리며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며 “올 시즌을 보내며 타격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깨닫기도 했고, 현재 이룬 것도 없는 만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속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종범의 입지가 좁은 건 사실이다. 이종범은 올 시즌 이용규·장성호·최희섭·김원섭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맞물려 1루수로도 잠깐 데뷔를 했었지만 원래 자리인 외야는 어느 포지션보다 경쟁이 뜨겁다.

조범현 감독이 내년 시즌 ‘젊은 피’ 이용규와 나지완의 중용을 예고한 가운데, 노련한 채종범·김원섭·최경환과 함께 시즌 막판 빠른 발과 재치있는 타격으로 눈길을 끈 이호신도 가세해 외야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용병도 이종범의 복병이다. 올 시즌 거포부채로 남패를 겪었던 조범현 감독은 거포 용병 영입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현지에 나가있는 스카우트 팀이 아직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타자 용병의 영입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아직 이종범과 구단측은 은퇴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한국 야구의 전설을 향해 ‘부담스러운 칼’을 든 구단과 ‘아직도 목이 마르다’는 이종범은 조만간 테이블에서 은퇴설의 결말을 지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원삼 트레이드 승인 여부 오늘 결정

프로야구에 한바탕 회오리 태풍을 몰고 온 ‘장원삼 트레이드’의 승인 여부가 20일 최종 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지난 14일 히어로즈가 에이스 장원삼(25)을 삼성에 보내는 대신 좌투수 박성훈(26)과 현금 30억원을 받은 트레이드에 대해 승인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종 승인권자인 신 총재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20일 오후 2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체고의 박은경이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목별 평균대 결승에서 우아한 자태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체고 박은경 亞 ‘체조 여왕’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으로 떠오른 박은경(17·광주체고)이 22년 만에 한국 체조의 국제무대 금메달을 따냈다. 박은경은 19일 오전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 돔에서 끝난 제4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목별 평균대 결승에서 15.075점으로 금메달을 따 대미를 장식했다.

박은경은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땀 뒤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 평균대에서 15.075점으로 일본의 미노베 유(14.925점)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조국에 선사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년간 올림픽 단체전 출전에 실패, 급격히 내림세를 그린 여자 체조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서연희와 서선영이 각각 이단 평행봉과 평균대에서 1위에 오른 이후 22년 만이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수확, 1996년 중국 창사에서 열린 첫 대륙 대회 때 성적(금1, 은1, 동2개)

아시아 선수권 평균대 개인 금 한국 22년만에 국제무대 우승

을 뛰어넘었다. 절대 감자 중국이 이번 대회에 불참해 이룬 성과이긴 하나 차세대 간판선수들의 가능성을 엿보는 데 의미가 작지 않다. 세 대교체에 시동을 건 남녀체조대표팀은 아시안선수권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협회는 전국체전이 끝난 지난달 대표팀을 소폭 개편했다. 남자 대표팀은 주축 양태영(28·포스코건설)과 김대은(24·전남도청) 등이 개인 훈련에 몰두하고 김지훈(24·서울시청)과 유원철(23·포스코건설)이 일본 도요타컵 국제체조대회에 참가한 탓에 김수민(22·한체대)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을 새로 꾸렸다.

올 전국체전 5관왕...올림픽 메달 꿈꾸는 ‘체조 요정’

여자체조 사상 국제대회에서 22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박은경(17·광주체고)은 준비된 꼴이다. 박은경은 지난해 광주 전국체육대회 여자체조 4관왕, 올 제89회 전남 전국체육대회 5관왕에 오른 등 국내 여자체조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올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자신의 주종목인 평균대에서 차지에 실패해 전무후무한 전관왕(6관왕)을 놓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박은경은 지난 2000년 양산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체조를 하고 싶어 체조부 모집에 신청을 했으나 최종선발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꿈꾸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박은경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 6학년 때 소년체전 뽕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조계에 이

■ 박은경 선수는?

름을 알렸다. 이후 승승장구하던 박은경은 2004년 광주체육중에 입학, ‘광주 체조계의 대부’ 최규동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해 소년체전 단체종합 우승과 함께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할까. 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박은경은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아픔을 겪으며 운동을 그만둘까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최 감독과 함께 부상을 치료하며 절치부심한 박은경은 지난 2005년 소년체전 금메달, 2006년에는 소년체전 3관왕에 오르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이상욱(23·전남도청), 하창주(20·한체대), 유진욱(26·수원시청), 신형욱(27·상무), 김상우(20·경희대) 등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첫 국제대회에서 일본, 북한 등 녹록치 않은 상대와 기량을 겨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양태영, 김대은의 뒤를 이어 개인종합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민은 단체전 은메달을 이끈 데 이어 개인종합에서 동메달을 따. 그는 마루운동과 안마에서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고 탄탄한 실력을 뽐냈다.

하창주는 안마에서 금메달, 마루운동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주축 선수로 입지를 다졌다. 여자대표팀도 장래를 바라보고 초등생 위주로 꾸려왔던 팀을 바꿔 전국체전 5관왕 위업을 달성한 박은경을 필두로 조현주(16), 김다은(16·이상 학생여고), 한별(16·경기체고), 박하얀(16·대전체고), 한은비(18·서울체고)로 재편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고교에서는 더이상 적수가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1m47cm, 36kg으로 어린 모습의 박은경은 가장 이상적 체격을 지닌 체조선수로 꼽힌다. 또 자신의 주종목인 평균대와 마루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해도 손색없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예술적 난이도가 약한 것이 보완해야 할 점이다.

최규동 광주체고 여고부 체조 감독은 “전국체전과 스위스컵 출전 후 6일간 훈련을 받고 아시아체조선수권에 출전하는 강행군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 자랑스럽다”며 “예술적 표현력만 보완하면 평균대와 마루에서는 올림픽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北 20세 이하 女 축구 월드컵 2연패 노린다

오늘부터 칠레서 개막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뉴질랜드에서 막을 내린 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북한 여자 축구가 20세 이하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2008 FIFA U-20 여자월드컵은 20일부터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U-19 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4위에 머물러 3위까지만 가능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됐고, 북한은 우승을 차지해 당당히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할 자격을 얻었다.

올해로 4회째인 FIFA U-20 여자월드컵에서 아직 2회 연속 우승팀은 없었다.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북한이 한 차례씩 정상에 올랐을 뿐이다.

이번 대회는 대륙별 예선을 통과한 16개국 4개 팀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가 8강 토너먼트로 챔피언을 가린다.

북한을 비롯한 역대 대회 우승팀과 2004년, 2006년 연속 준우승에 그친 중국 등이 다시 우승을 다투는 전망이다.

디펜딩챔피언 북한은 D조에 속해 21일 브라질과 1차전을 시작으로 24일 노르웨이, 28일 멕시코와 차례로 맞붙는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브라질은 지난 러시아 대회 준결승에서 만나 북한이 1-0으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관중에 동전 던진 첼시 드로그바

3경기 출장 정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간판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로그바(30)가 경기 도중 관중에게 동전을 던진 행위로 3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ATP통신이 19일 전했다.

드로그바는 이에 따라 22일 뉴캐슬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아스널, 볼턴과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드로그바가 같은 징계를 받게 된 사건은 지난 13일 첼시 홈구장인 스탬포드브리지에서 열린 2008-2009 칼링컵 4라운드(16강) 2부리그 번리와 경기에서 그가 전반 27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나서 발생했다.

원정 관중석 앞에서 골 세리머니를 한 드로그바에게 일부 번리 팬들이 동전을 던지자 드로그바가 그라운드에 떨어져 있던 한 개 동전을 주위 관중석으로 던졌다.

그러나 심판은 드로그바가 관중석에 동전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드로그바는 원정 팬들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친 것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축구협회(FA)가 조사에 착수, 동전 투척을 난폭한 행위로 간주하고 드로그바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드로그바는 바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후회한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고 싶다. 동전을 던진 것은 큰 실수였고 축구 경기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경찰도 드로그바에게 동전을 던진 팬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형택 3회전 진출

ATP 챌린저대회 단식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챌린저대회 단식 3회전에 올랐다. 세계랭킹 134위 이형택은 19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게이오 챌린저대회 단식 2회전에서 제고리 판필(353위·폴란드)을 2-0(6-3 6-2)으로 돌려세우고 8강에 진출했다.

총상금 3만5천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 2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단식 우승을 차지할 경우 상금 5천달러와 랭킹 포인트 55점을 받는다.

다음 주 일본 도요타에서 열리는 챌린저대회까지 연속 우승하면 랭킹 포인트 110점을 보태며 순위를 100위권 안팎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택은 모리야 히로키(851위·일본)-아이삼 울하르 쿠레시(221위·파키스탄) 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